

“나만이 가진 색깔 전달하고자”

‘소녀시대’ 서현, 첫 솔로앨범 ‘돈트 세이 노’ 발표

“신인 솔로 가수 서현입니다.” 그룹 ‘소녀시대’ 멤버 서현(26)이 데뷔 10년 만인 지난 17일 첫 솔로 앨범 ‘돈트 세이 노(Don't Say No)’를 발표했다.



지난 18일 삼성동 SM타운 코엑스 아티움 씨어터에서 미리 공개한 무대에서 서현은 더 이상 청순함과 귀여움을 강조하는 막내가 아니었다.

‘매직’에서 보여준 블랙 콘셉트의 고혹적인 섹시, 타이틀곡 ‘돈트 세이 노’에서 과시한 강렬한 레드 콘셉트의 요염함은 ‘난 이제 더 이상 이제 소녀가 아니에요. 그대 말하지 말아요’(박지윤 ‘성인식’)라고 행변하는 듯했다.

서현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만의 색깔을 전달하고 싶으며 ‘소녀시대’ 막내가 아닌 서현이라는 가수 서현이라는 사람이 이런 감성을 갖고 있다는 걸 표현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평기한 리듬과 R&B 하모니가 돋보이는 ‘돈트 세이 노’는 SM엔터테인먼트의 대표 작곡가이자 소녀시대의 데뷔곡 ‘다시 만난 세계’를 만든 켄지와 매튜 티슬러가 호흡을 맞춘 곡이다.

“뻔뻔스럽게 노래하는 곡이라고 ‘돈트 세이 노’를 설명한 서현은 본래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은 다른 곡이었는데, 본인이 이수만 대표 프로듀서까지 직접 설득하며 타이틀곡으로 내세웠다고 했다.

소속사 SM이 본래 성숙하고 섹시한 서현의 이번 앨범 콘셉트를 반대했다는 얘기가.

“소녀 같은 콘셉트로 기타를 들고 연주하는 앨범을 내면 어떨까요? 하셨어요. 제가 벌써 20대 중반인데 너무 감사한 제안이었어요. 호호. 하지만 저보다 (그런 콘셉트를 내세우는) 어린 친구들이 많고 저 역시 그런 콘셉트를 여러번 했어요. 보여드리지 않은 모습, 제 안에 또 다른 있는 모습을 꺼내서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이번 앨범은 걸모습뿐 아니라 음악적으로도 서현이 성숙했음을 증명하는 앨범이다.

서현은 이번 솔로 앨범에서 타이틀곡을 제외한 수록곡 6곡을 모두 작사해 눈길을 끈다.

“사람에 빠지는 순간을 강한 마법에 걸리는 순간에 비유한 ‘매직’, 부드럽고 따뜻한 연인의 사랑을 달빛에 비유한 가사가 돋보이는 ‘달빛’ 등이다. ‘테마 자체가 사랑이에요. 이번 앨범을 제작하려고 할 때부터 제 감성을 100% 다 보여주고 싶어서 전곡을 작사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자들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하는 공감 이 주된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SM은 작곡과 작사에 있어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멤버들이 작사 작곡을 했다고 무조건 채택하지 않는다. 일정 정도의 완성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사실 소녀시대 앨범도 그렇고 (소녀시대의 보컬 유닛인) 소녀시대 - 태티서 앨범도 그렇고 작사를 많이 시도했어요. 하지만 90%는 떨어졌죠. 이번에도 A&R(아티스트 앤 레퍼토리)의 악으로 주로 아티스트에 맞는 악곡의 발굴 등을 담당할 팀이 제가 작사한 노래가 선택이 되지 않을 것 같다고 했어요. 복숨 걸고 하겠다고

말한 이유죠 호호”

호사기들은 24일 첫 솔로 데뷔 미니 앨범 ‘에스 노’를 발표했지만 그에 앞서 서현이 앨범을 발매하는 17일 당일 수록곡 ‘행복한 적을 미리 공개하는 ‘미스미’ 수지와 맞대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소녀시대로 활동할 때 역시 라이벌로 생각해주시는 팀들이죠. 그런 분들과 함께 할 때 더 감사하고 더 즐거웠습니다. 예전에는 남성 그룹이 많았는데, 이렇게 라이벌 구도로만 들어주는 것이 ‘결파위’라고 느끼거든요. 이번에도 우연히 겹쳤는데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서로에게 자극제가 된 것 같아 감사합니다.”

/뉴시스

김연경, 소속팀 페네르바체 터키컵 우승 견인

배구여제 김연경이 소속팀 페네르바체를 터키컵 정상으로 이끌었다. 페네르바체는 18일(한국시간) 터키 앙카라에서 열린 2016~2017 터키컵 결승에서 비키프랑크를 3-0(25-22 25-15 25-19)으로 제압했다.

김연경은 세 세트를 모두 소화하며 양팀 선수 중 가장 많은 15점을 올렸다.

서브 에이스도 2개 결투하며 맹활약

했다. 김연경은 2014~2015시즌에 이어 두 번째 컵대회 우승을 맛봤다. 라이벌 주팅(중국)과의 맞대결에서도 판정승을 챙겼다.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금메달의 주역인 주팅은 비키프랑크 소속으로 13점을 올렸으나 김연경에 밀려 정상 등극에 실패했다.

페네르바체에 비키프랑크는 적수가

되지 못했다. 페네르바체는 1세트에서만 22점을 빼앗겼을 뿐 나머지 두 세트에서 비키프랑크의 추격을 20점 이상으로 막았다.

김연경은 경기 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터키컵 우승했습니다. 모두 응원해주신 덕분에 할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고 적었다.

/김민근기자

추신수, WBC 출전여부 불투명

추신수(35·텍사스 레인저스)의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출전이 사실상 힘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18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지역 매체인 ‘스타 텔레그램’ 보도에 따르면 존 다니엘스 텍사스 단장은 소속팀 선수 중 WBC 각국 대표팀에 포함될 선수를 언급했다.

투수는 마틴 페레스(베네수엘라), 알렉스 클라우디오(푸에르토리코), 샘 다이슨(미국) 등 3명이다.

야수는 아드리안 벨트레, 노마 마자르(이상 도미니카공화국), 조나단 루크로이(미국), 주릭스 프로퍼(네덜란드), 루고에트 오도어(베네수엘라) 등 5명이다.

다니엘스 단장은 한국 대표팀 28인 최종 엔트리에 이름을 올린 추신수를 비롯해 다르빗슈 유(일본), 엘비스 앤드루스(베네수엘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 동안 추신수는 오는 3월 한국에서 열리는 2017 WBC 출전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추신수는 지난해 시즌을 마치고 귀국하며 “대표팀 합류에 대해) 이번에는 구단에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다”며 “지금 아니면 대표팀을 또 언제 하겠냐”라고 강조했다.

추신수의 의지와는 반대로 텍사스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추신수를 비롯해 부상 전력이 있는 다르빗슈와 앤드루스의 대표팀 차출에 대해 꾸준히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추신수도 “하무 문제없이 한 시즌을 보냈다면 구단에서도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았을텐데 구단 입장에서는 걱정되는 것 같더라”며 구단 분위기를 전한 바 있다.

메이저리그 각 구단은 선수들의 WBC 출전을 막을 길은 없다. 선수들의 출전여부는 전적으로 메이저리그

부상방지위원회와 선수노조의 결정에 따른다.

그러나 팀내 고액연봉자이면서 지난 시즌 4차례 부상자 명단에 올랐던 추신수다.

비시즌 그의 국제대회 출전에 대해 구단이 반대 입장인 상황에서 부상방지위원회도 구단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김인식대표팀 감독도 이 점을 고려해 대비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김 감독은 지난 11일 추신수의 대표팀 합류와 관련 “부상방지위원회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이지만 만약 추신수가 합류할 수 없다면 그를 대체할 선수는 20일 이후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추신수가 대표팀에서 뛸 수 없게 된다면 50인 예비엔트리에 올랐지만 최종 엔트리에 제외된 와이수 나성범(NC), 박해민(삼성), 김주찬(KIA), 유한준(KT) 가운데 한 명을 대체 선발하게 된다.

/김민근기자

EXID, ‘러블리 큐트걸’ 로 깜짝 변신

위아래로 뜬 섹시 걸그룹 EXID가 ‘러블리 큐트걸’로 깜짝 변신했다.

소속사 바나나컬처엔터테인먼트는 18일 패션매거진 ‘코스모폴리탄’ 2월호에 참여한 EXID의 화보 사진과 인터뷰를 공개했다.

화보에서 멤버들은 평소 강렬한 ‘걸크러시’ 모습이 아닌 사랑스러우면서도 밝고 경쾌한 모습을 뽐내며 ‘반전 매력’을 보여주고 있다.

EXID는 각자 화보 콘셉트에 맞게 각각의 옷을 소화하며 포즈를 취하고 있어 눈길을 사로잡는다.

한편 EXID가 ‘평범한 20대’로 변신해 유쾌하고 발랄한 모습이 담긴 화보와 인터뷰는 ‘코스모폴리탄’ 2월호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만날 수 있다.



18일 패션매거진 ‘코스모폴리탄’ 2월호에 참여한 EXID의 화보 사진과 인터뷰를 공개했다.

타’ 2월호와 공식 웹사이트(www.cosmopolitan.com)를 통해 만날 수 있다. /뉴시스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공동발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태권도원

THE GREAT CHANGE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